

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게재논문(1979-2015)을 중심으로 -

감 정 기⁺

(경남대학교)

감 미 아⁺⁺

(연세대학교)

박 미 희

(경남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학회지에 1979년 창간호에서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의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사회복지학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전체시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를 두 시기로 나눈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연구의 동향을 밝혀보게 된다. 연구의 가닥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연구방법의 동향으로서, 질적, 양적 및 문헌연구의 비중이 시기별로 변화된 양상을 개관한다. 둘째는 연구주제의 동향으로서, 시기별 키워드 출현빈도의 추이를 분석한다. 셋째는 지적 구조의 동향으로서, 키워드들의 중심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본 후에,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주는 패스파인더 알고리즘 및 네트워크 구조를 도식적으로 구현해주는 노드엑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학 지적 구조의 흐름을 밝힌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들에 내포된 함의를 검토해 본다.

주제어: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지적 구조

⁺ 주저자.

⁺⁺ 교신저자.

1. 여는 말

‘사회사업학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이 1947년에 창설된 지 70년째이며, 사회복지학 영역의 대표적 학술단체라 할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학회』가 1957년에 창립된 지 60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교육과 연구의 역사는 2016년 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교가 80개를 넘어섰고, 『한국연구재단』 등재 내지 등재후보 학술지로서 중범위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술지가 27개에 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교육과 연구의 역사를 거치는 가운데 양적 확대를 거듭해온 사회복지학 연구가 걸어온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은 이 분야의 학술적 관심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조명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천 혹은 응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학의 동향은 곧 우리 사회 사회복지 관련 이슈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동향연구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회고적 고찰은 종종 미래지향적 사유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동안 사회복지학 및 관련 학문 영역에서 학술연구의 동향을 다룬 연구들이 적잖게 있어왔다. 이들을 일별하건대, 연구동향을 통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최균(1995)의 연구에서 비롯된(김연옥, 1998: 86) 이후 간헐적으로 이뤄져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에는 특정 인구집단이나 문제 혹은 쟁점에 국한된 연구의 동향들을 다룬 것들이 다수인 바, 이들은 사회복지학의 포괄적인 영역에 걸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한편, 인구집단이나 문제를 특정화하지는 않았으며, 연구방법, 경험분석, 사회복지실천, 개입, 연구설계, 연구관점, 연구자 등과 같이 제한된 관심사들에 대해서만 다룬 연구들도 다수 발견된다. 이들 역시 연구동향의 단면들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한계를 지닌다.¹⁾

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은 각기 연구의 범주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분석방법 면에서도 제한적 요소가 발견된다. 내용분석을 기초로 한 기술적 통계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방법들은 연구의 흐름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한 주제들이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주제들의 연결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점은 분석방법에 대한 새 지평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연구주체의 연결 구조와 주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김희진·조현양, 2010) 특정 분과학문 영역의 단기간 경향만을 다룬다는 점(최재성 외, 2016)에서 사회복지학 전반에 주는 함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반적 한계는 이를 넘어설 대안적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분석의 범주와 기간을 넓히고 분석방법을 보완한 연구가 요청된다

1) 이러한 범주에 드는 구체적인 연구사례들은 후술하는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바, 대안적 분석방법을 학술논문들의 키워드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연구는 키워드 사이의 연결 분석에 가중치를 반영한 대안적 중심성 지수들과, 키워드들의 동시출현 빈도 행렬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정보를 산출해주는 패스파인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이재윤, 2006a, 2006b, 2013).²⁾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게 하는 NodeX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난 시기 국내 사회복지학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분석의 범주는 넓게 잡되,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국내 사회복지학 대표학술지라 할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연구들만을 택하고자 한다. 1979년의 창간호에서 2015년의 제67권 제4호까지의 수록논문 1,211편의 키워드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해당 기간 37년의 전체를 묶어서 분석하는 외에, 세기 전환기를 분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을 더함으로써 연구경향이 변화해온 정황도 짚어보려 한다. 그래서 연구의 동향을 연구방법의 동향, 연구주제의 동향, 지적 구조의 동향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사회복지학 연구동향을 다룬 연구

국내 사회복지학 영역의 연구들 가운데 연구동향을 다룬 연구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연구주제별로 보면 특정 인구집단에 관한 연구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장애 및 장애인 문제를 다룬 연구의 동향을 다룬 연구들이 비교적 다수이며(김경미·김미옥, 2006; 나운환, 2011; 박주영, 2012; 조홍중 외, 2013; 신보희 외, 2014; 최복천·김유리, 2014; 김라경·연준모, 2015), 노인 관련 연구의 동향을 다룬 연구들(선우 덕, 2008; 김미혜, 2008; 정순돌·김성원, 2012)이 그 다음을 잇는다. 이 밖에 여성학(성정숙·이나영, 2010a), 여성 결혼 이민자(이현지·김민수, 2014), 성적 소수자(성정숙·이나영, 2010b) 등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특정 인구집단이 아닌 사회문제 혹은 사회복지의 특정 영역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다룬 것들로는 빈곤(김교성, 2011), 종교 사회복지(오세영, 2011, 2013), 사회서비스 평가(오윤정·남진열, 2012), 정신보건(강상경, 2014), 학교사회복지(임종호·유영준·진혜경, 2003; 김광혁, 2014)와 교육복지(진혜경, 2013), 사회복지행정(황성철, 2002; 최재성 외, 2016) 등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띈다. 이상의 연구들은 특정 문제나 인구집단에 국한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

2) 이재윤은 이 분야의 연구와 분석 도구 개발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고 있어 참조할 만하며, 그가 가중 네트워크 분석도구 모음으로 개발한 WNETs Tools에 포함된 프로그램인 WNET이 이와 같은 지적 구조 분석에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영역의 폭넓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정 주제나 인구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관심범주를 넓혀 다룬 예로서는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 동향(홍경준, 2002; 강철희·김미옥, 2003), 경험분석 연구동향(김연옥, 1998), 사회복지실천 연구동향(김미옥, 2015), 사회복지학 영역에서의 개입에 관한 연구동향(정상원·송아영, 2007) 등을 분석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다루는 주제나 인구집단을 특정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도 연구방법, 경험분석, 사회복지실천, 개입 등과 같이 제한된 주제들에 대해서만 다룸으로써 연구동향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연구동향 분석의 초점으로 삼은 영역에는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유형 등이 중심을 이루며, 이 밖에 다소 독특하게 설정한 분석영역으로 연구설계(성정숙·이나영, 2010b), 연구관점(강상경, 2014), 연구자(김미옥, 2015) 등을 포함시킨 경우들도 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물로는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한국사회복지학』 게재논문으로 한정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김연옥, 1998; 강철희·김미옥, 2003; 정상원·송아영, 2007; 성정숙·이나영, 2010a; 김미옥, 2015), 사회복지학 부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폭넓게 아우른 연구(김경미·김미옥, 2006; 김교성, 2011)도 있다. 이 밖에 RISS, DBPIA, KISS 등의 논문검색 포털과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여 진행한 연구(오세영, 2011), 학술지와 석박사 학위논문을 함께 다룬 연구(박주영, 2012), 『한국노년학』이나(선우 덕, 2008; 김미혜, 2008) 『직업재활연구』(나운환, 2011) 등과 같이 특정 영역 학술지에 국한하여 분석한 연구 등의 유형으로 대별된다.

연구에 포함시킨 기간은 연구의 목적이나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등에 따라 최단 8년(정상원·송아영, 2007)에서 최장 32년(오세영, 2011)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대개 20년 이상의 기간을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분석대상이 된 연구물의 편수도 다양해서 최소 61편에서 최대 538편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내용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분석결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연구방법 면에서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편향성이 매우 심한 양상을 띠어 온 점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특히 1990년을 전후로 경험적 연구들이 크게 확대되었던바, 이러한 연구들이 양적연구의 방법의 확산과 궤를 함께 하였다는 것이다(김연옥, 1998; 강철희·김미옥, 2003). 홍경준(1998)은 이러한 양적연구 신장의 원인을 미국 사회사업계의 영향을 받은 신진 연구자들의 확대와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입증의 필요성 증대로 파악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 이후 이러한 양적연구 편향성에 대한 지각이 확대되면서 질적연구 논문들의 양적 확대가 가시화되기에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강철희·김미옥, 2003).

이러한 연구방법 경향의 변화와 더불어 드러나기 시작한 특성 중에 하나는 1990년대 이후 빈곤을 주제로 한 연구가 다수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 영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던 점,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정부, 국책연구소, 정당, 학계 등에서 빈곤과 소득불평등 실태와 원인에 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되었던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사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2차 자료들이 구축되고, 정교한 연구 및 분석방법이 도입되면서, 빈곤에 대한 양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김교성, 2011).

이상과 같은 국내 사회복지학 영역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일부 예(김연옥, 1998)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져 왔고, 그것도 2000년대 초반보다 2010년 이후에 훨씬 많은 편수의 연구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학문의 연륜이 깊어지고 연구물의 양적 및 질적 발전이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그 흐름과 경향을 되짚어보고자 하는 메타연구적 관심이 이 시기에 확대되기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러한 연구동향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한 주제 혹은 이슈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주제들 사이의 연결구조는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동시인용분석과 서지결합 분석에 의해 사회복지학의 지적 구조를 분석한 김희전과 조현양(2010)의 연구나,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병행한 분석방법으로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최재성 외(2016)의 연구는 분석방법 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본 연구도 이들의 문제의식과 궤를 함께 하되, 분석의 범위와 기간을 확장하고 분석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 지적 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학문의 지적 구조(intellectual structure)란 학문의 지적 체계를 구조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민, 2009). 주요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되는 학문의 지적 구조를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으로 접근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³⁾ 이 범주에 드는 연구의 다수는 문헌정보학과 정보관리학 영역서 수행된 것들이며, 이 외에 경제학, 마케팅학, 언론학 내지 커뮤니케이션학, 청소년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의 사회과학 영역과 함께, 역사지리학, 주거학, 전기공학, 물류학, 스포츠사회학, 여가레크리에이션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이뤄져 왔다.

사회과학 영역에 드는 연구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저자동시인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수범 외, 2006; 김영준·김채환, 2007; 김재욱 외, 2008; 김민, 2009; 김광재·박종구, 2011; 광선영·정은경, 2012; 전은주 외, 2013)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 소수만이 키워드 연결망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저자동시인용분석과 키워드 분석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김도미, 1993; 김경식, 2015) 있다. 김희전·조현양(2010)은 저자동시인용분석과 저자 서지결합 분석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동시인용분석은 분석단위를 문헌이 아닌 저자의 저작물 총체로 바꾼 분석방법이며(김민, 2009), 특정 저자에 의하여 두 명의 저자가 동시에 인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자 중심의 지적 구

3) 지적 구조 분석방법의 하나인 저자동시인용분석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81년이며, 이후 연구동향 분석과 지적 구조 분석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나(김희전·조현양, 2010: 284),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예는 매우 드물.

조 분석방법이다(김영준·김채환, 2007; 김희전·조현양, 2010). 이 분석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분야에 대한 상세한 서지정보와 전문지식이 없어도 분석이 가능한 반면, 통상적인 인용지체 현상 때문에 연구 당시가 아닌 수년 전의 지적 구조를 파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김희전·조현양, 2010). 특정 주제분야 내의 지식의 흐름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단점도 있다(김민, 2009).

이에 반해 키워드 네트워크(주제어 연결망) 분석은 키워드들 사이의 관계의 양상이나 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키워드 동시출현 분석을 기초로 지식체계를 구조화 시켜 주며(장령령·홍현진, 2014),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와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구분해 줌으로써 지적 구조를 잘 드러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키워드 분석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키워드가 당해 연구의 핵심 주제를 잘 나타내도록 저자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김경식, 2015).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및 입력

분석을 위한 자료원은 국내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 학술단체인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학술지로서 1979년에 창간되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복지학』의 게재논문으로 삼았다. 여기에 창간호부터⁴⁾ 2015년 최종호인 제67권 제4호까지 게재된 1,211편의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게재논문에 키워드(주제어)가 제시되지 않은 2002년 여름호(통권 제49호)까지의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제목과 요약에 참조하여 연구자가 추출하여 자료화하였고, 2002년 가을호(통권 제50호)부터는 주어진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사어나 의미는 같으면서 표기방식만 변화된 용어는 가급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바꾸었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공적부조'는 '공공부조'로,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으로, '심신장애자'나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바꾼 것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용어의 역사성을 중시하여 그 변화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기별 분석에서는 일단 원저자의 표기대로 사용하였다. '사회사업', '사회사업실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등은 원저자의 표기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케이스워크'나 '케이스워커' 등의 표기는 '개별사회사업'으로 바꾸었고, '집단사회사업'을 '집단지도'로 표기한 경우는 '집단사회사업'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체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용어의 역사성보다 의미에 역점을 두어, '사회사업'을 모두 현재 통용되는 '사회복지실천'으로 바꾸어 분석하였다.

둘 이상의 명사를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명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표기하였다. 분석

4) 1979년의 창간호부터 1983년까지는 『사회사업학회지』로 발간되었고, 이후 『사회복지학회지』를 거쳐 지금의 『한국사회복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들 모두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프로그램이 하나의 용어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임상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프로그램', '시설사회화', '사회복지사상' 등이 그것이다. 일부 국가간 비교나 외국의 사례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 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한국'은 키워드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외국과 비교연구를 하는 경우에만 키워드로 사용하였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사회복지도 키워드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별히 연구의 초점으로 삼지 않고 단순히 접미어처럼 사용한 '서비스', '정책', '제도' 등의 표기는 모두 삭제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법률상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그대로 썼으나,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복지'로, '소득보장정책'은 '소득보장'으로, '가족치료프로그램'은 '가족치료'로 표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정책'으로 표기하고, '사회정책'은 용어 사용자에 따라 의미에 다소간 편차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고 원저자의 표현대로 따랐다.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 중의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는 가급적 원문의 표기법을 따르되,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면서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은 경우는 발음을 적었다. 원저자가 complex로 표기한 것을 '컴플렉스'로 옮긴 것이 그 예이다. casework과 같은 표기는 1990년대 이전에만 나타나므로, 시기별 분석에서는 '개별사회사업'으로 옮겼다가 전체 기간 분석에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별사회복지실천'으로 바꾸어 다루었다.

2) 분석방법

연구동향 분석은 분석대상 기간(1979년-2015년) 전체에 대한 분석과 두 시기로 나눈 분석을 병행하였다. 여기서 두 시기란 학회지가 처음 발간된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와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가 그것이다. 이렇게 나눈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한 때문이다. 먼저, 1990년대의 말은 우리나라가 미증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여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가운데 거시경제 긴축, 대외개방과 자유화, 구조조정 등과 같은 이른바 '강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채택되었던 시기였다(윤상우, 2013). 2001년 8월에 IMF 관리체계가 종료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촉진되기에 이르렀을 정도로(지주형, 2007) 이 세기전환기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었다 할 만하다. 공공부조 제도의 질적 전환을 이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1999년 9월)과 시행(2000년 10월)도 이러한 경제위기와 관련되어 있고, 1998년에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을 종래의 30인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에까지 급속히 확대시켜 나간 조치 등도 이와 관련되어 있고 봄이 옳다.

이 밖에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제도의 변화가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점도 이러한 시기구분에 참작되었다. 1999년은 건강보험 완전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그리고 도시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개연금의 시대가 비롯된 해라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또 1999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면개정과 시행으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해이기도 하다. 학술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일정한 시차를 가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 2001

년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기간을 구분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하나는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연구방법 추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통계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키워드들의 동시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이다. 먼저, 기술적 통계분석은 연구방법별 논문편수의 분포 및 변화추이, 개별 키워드의 출현 빈도 등에 대한 단순 기술통계치를 제시함으로써 분석대상 기간 동안의 개략적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하나는 키워드의 중심성(centrality)⁵⁾ 지수를 통해 연구방법 및 시기별로 어떤 키워드가 상대적 중요성을 지녔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키워드간 연결구조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학술지 게재논문들의 키워드 동시출현빈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은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되는 중심성 지수로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의 지수가 사용된다(고재창 외, 2013). 그런데 이러한 지수들이 노드(node), 즉 키워드 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가중치를 고려한 새로운 지수들이 권장된다. 그것이 최근접이웃중심성(nearest neighbor centrality; C_{NN}), 평균연관성(mean association; C_M), 평균프로파일연관성(mean profile association; C_{MP}), 삼각매개중심성(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C_{TB}) 등의 네 가지 지수이다(이재운, 2006a, 2013).

이때 C_{NN} 은 국지적(local) 중심성을 보여주는 지수로서, 인접해 있는 노드들에 의해 최근접이웃으로 꼽히는 정도를 표시한다. 반면에 C_M 과 C_{MP} 는 전역(global)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분석대상 전체 노드들과의 관계에서의 중심성 수준을 표시한다. 여기서 C_M 은 다른 노드들과의 연관성 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전체적으로 얼마나 근접한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며, C_{MP} 는 다른 노드들과의 연관성 수준보다는 연관성 패턴을 반영한 값으로서, 노드가 속한 집단의 입지가 중립적인 정도, 즉 여러 영역에 많이 연계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C_{TB} 는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를 결속 혹은 매개시켜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측정범위를 좁히면 지역 중심성 지수로도 사용될 수 있고 전체로 넓히면 전역 중심성 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전역 중심성 값으로서의 C_{TB} 값이 네트워크 구조를 가장 많이 반영하며, 반면에 국지적 중심성지수인 C_{NN} 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장 적게 반영하는 지수라서,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재운(2013)은 설명한다.

이 네 가지 지수의 값은 키워드 동시출현 빈도 행렬(co-occurrence frequency matrix)의 값을 가중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WNET에 입력하면 구할 수 있다. 정방대칭행렬 형태로 표현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WNET의 데이터로 입력하면,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링크 목록파일, 병렬 최근접 이웃 연결 클러스터링 결과파일, 가중네트워크 중심성 측정결과 파일 등의 세 가지 파일을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세 번째인 가중네트워크 중심성 측정결과 파일에서 출력되는 네 가지 지

5) 용어 사용자에 따라 '중앙성' 혹은 '중심도'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중심성'으로 표기하고자 함.

수 가운데 국지적 중심성 지수인 최근접이웃중심성과 전역중심성 지수인 평균연관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등의 세 가지 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드간 연결구조의 그래프는 두 키워드가 제3의 키워드와 동시 출현한 값을 비교해 보여주는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Pearson's correlation matrix) 값을 WNET에 입력하여 출력된 값을 NodeX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구현한다.

4. 분석결과

1) 연구방법의 동향

전체의 시기를 2000년 이전의 시기와 2001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개별 연구들이 주로 적용한 연구방법을 문헌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병행 등으로 대별하여 구분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란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고 기존의 문헌자료나 2차 자료에 의존한 논증의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를 뜻한다. 담론 형식의 연구나 역사적 연구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⁶⁾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입수한 경험적 자료 혹은 공인된 패널자료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들을 가리킨다. 이 양자를 겸한 연구로서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는 '질량병행' 연구로 분류하였다. 전반적으로 2001년 이후 연구물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2000년 이전에는 문헌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질적 연구의 비중이 극히 낮음에 반해, 2001년 이후에는 양적 연구의 확대가 돋보이며 질적 연구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양적 연구 편향성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편향성이 지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동향연구들(김연옥, 1998: 홍경준, 2002: 오정수, 2002; 강철희·김미옥, 2003)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표 1〉 시기별 연구방법별 분포

시기 \ 방법	문헌	질적	양적	질량병행	계
2000이전	216(52.6)	17(4.1)	174(42.3)	4(1.0)	411(100.0)
2001이후	173(21.6)	137(17.1)	466(58.3)	24(3.0)	800(100.0)
계	389(32.1)	154(12.7)	640(52.8)	28(2.3)	1,211(100.0)

연구방법별로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살펴보면, 문헌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실천'('사회사업' 포함), '사회보장', '복지국가' 등이 상위에 속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아동', '사회복지사'('사회사업가' 포함), '사회복지실천' 등이 상위에,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는 '빈곤', '사회복지사', '청소년' 등이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실천', '빈곤',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청소년' 등이

6) 통상 비경험적 연구로 분류되는 연구(홍경준, 2002; 강철희·김미옥, 2003)가 이 범주에 든다.

각각 두 가지 방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경우 외에는 겹치는 키워드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세 방법에 공통으로 10위권에 드는 키워드는 단 하나도 없다. 각 연구방법이 관심을 기울여온 주요 주제 사이에 차이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2〉 연구방법별 출현빈도 상위 10위권의 키워드와 출현빈도

순위	문헌	질적 ¹⁾		양적 ¹⁾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1	사회복지실천	37	아동	9	빈곤	39
2	사회보장	27	사회복지사	9	사회복지사	32
3	복지국가	25	사회복지실천	8	청소년	29
4	영국	21	청소년	8	노인	29
5	사회복지서비스	20	현상학	6	우울	23
6	복지정책	18	아동학대	6	정신장애인	22
7	빈곤	18	가정폭력	6	사회적지지	20
8	일본	17	가족/프로그램/	5	스트레스	18
9	국가	15	사회복지관/경험/		사회복지서비스	16
10	미국	15	장애인/양육경험		장애인	16

주: 1) 질량병행 연구의 사례가 적은 관계로 이 범주에 드는 연구의 키워드 분포는 따로 구하지 않고 질적 및 양적 연구 양쪽 모두에 각각 포함시켜 다룸.

2) 연구주제의 동향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시기별로 변화된 양상은 연구주제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를 비교해 보면, 먼저 총 411편의 논문에서 1,025가지의 키워드들이 포착된 2000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사회사업'이 가장 출현빈도가 높고, '청소년'이 차순위를 차지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복지국가'와 같은 제도적 혹은 거시적 차원의 논제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 이름들이 10위 안에 들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노인'은 10위에 머물러 있다.

2001년 이후에는 총 800편의 논문에서 2,413종의 키워드들이 포착되었는데, 이 가운데 '빈곤'이란 용어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와 '노인'이 역시 비슷한 현상으로 다음 순위를 잇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울'과 같은 임상적·미시적 범주의 주제가 대세인 반면, 거시적 범주의 주제는 상위권에서 모두 밀려난 양상을 띤다. 한편, '장애인'이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부상해 왔음도 확인된다. 경험연구 중에서 양적 연구의 비중이 절대화한 상황이 키워드 출현빈도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211편의 논문에서 총 3,067종의 키워드가 포착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빈곤'이 사회복지의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고, '사회복지실천'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사회복지학의 주요 관심사로서의 위치를 점해 왔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 대상 인구층으로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정신장애인 포함)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집단임도 볼 수 있다.⁷⁾

〈표 3〉 시기별 출현빈도 상위 10위 키워드

순위	2000 이전	2001 이후	전 기간 ¹⁾
1	사회사업 30	빈곤 45	빈곤 61
2	청소년 22	사회복지사 29	사회복지실천 51
3	사회복지서비스 19	노인 23	사회복지사 51
4	사회보장 18	우울 20	청소년 42
5	복지국가 17	청소년 20	노인 37
6	미국 17	장애인 19	사회복지서비스 36
7	빈곤 16	정신장애인 18	사회보장 30
8	일본 15	타당도 17	복지국가 29
9	사회사업가 15	사회복지실천 17	장애인 28
10	노인 14	사회복지서비스 16	정신장애인 26
		사회적지지	

주: 1) 전체 기간의 키워드 중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사업'을 포함하며,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가'를 포함함.

키워드 출현빈도 검토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전 기간에 걸쳐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들을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인구 측면에서는 전술한 3개 인구집단 외에 아동과 여성이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가족이나 저소득층 등도 주요 연구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특정 용어가 미시적 혹은 중범위 연구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 혹은 거시적 연구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용어의 일반적 용례에 비추어 유추해서 분류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그렇게 구분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미시적 및 중범위 영역에 속하는 실천 관련 용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빈곤'은 특별히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그런가 하면, 외국 국가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가장 관심의 빈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며, 독일도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다. 양적 연구의 비중이 컸던 관계로 '신뢰도'나 '타당도'와 같은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보이며,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와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2000년까지의 키워드 가운데 단 한 차례만 출현한 키워드가 716개가 되며, 2001년 이후 기간에는 1,885개, 전체 기간에는 2,257개의 키워드가 단 1회씩만 출현한 것으로 파악됨.

〈표 4〉 10회 이상 출현한 영역별 키워드 분포

빈도	대상인구	미시적/중범위	거시적	기타
60-		빈곤	빈곤	
50-59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		
40-49	청소년			
30-39	노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20-29	장애인, 정신장애인 아동, 가족	우울, 사회적지지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복지국가 복지정책	미국 영국, 일본
15-19	여성	스트레스, 가정폭력, 효과성, 자원봉사, 아동학대,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조직	국가	타당도, 신뢰도
10-14	저소득층	정신건강, 가족치료, 자아존중감, 사례관리, 직무만족, 프로그램, 생활만족도, 욕구, 인식, 어머니, 네트워크, 집단프로그램, 의사소통, 우울증	국민연금, 사회정책, 공공부조, 건강보험, 소득보장,	척도개발, 사회복지학, 독일

3) 지적 구조의 동향

지금까지의 분석은 단순히 키워드들의 출현빈도라는 양적 측면에 대한 분석으로서 성격과 한계를 지닌다. 키워드들의 동시출현 상황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산출된 중심성 분석 및 주요 키워드들 사이의 연결구조 분석을 통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1979-2000년 기간

먼저, 1979년부터 2000년 사이의 기간 411개 논문의 1,025가지 키워드 가운데 4회 이상 출현한 97개 키워드에 대해 세 가지 중심성 지수의 상위 10위까지를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출현빈도 1.2위를 차지했던 ‘청소년’과 ‘사회사업’은 최근접이웃중심성과 평균연관성에서 역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키워드는 인접한 키워드들과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전체와의 관계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사업’은 삼각매개중심성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키워드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가장 두드러짐을 말해준다.

<표 5> 1979년-2000년의 중심성 지수별 상위 10위

순위	최근접이웃중심성(C _{NN})	평균연관성(C _M)	삼각매개중심성(C _{TB})
1	청소년 .125	사회사업 .458	사회사업 .088
2	사회사업 .104	청소년 .354	사회복지서비스 .060
3	복지국가 .093	사회복지서비스 .354	청소년 .057
4	영국 .072	미국 .302	미국 .038
5	정책 .072	복지국가 .291	사회정책 .036
6	미국 .063	사회정책 .291	사회사업가 .033
7	빈곤 .063	영국 .281	복지국가 .029
8	정치 .063	빈곤 .281	빈곤 .029
9	사회문제 .063	사회보장 .281	노인 .028
10	노인 외(131) .052	일본 .260	일본 .027

주: 1)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지역사회, 사회정책, 가족치료, 스트레스, 아동, 정신장애인, 소득보장, 재가복지, 노동자, 농촌, 자본주의 등

이색적인 점이라면, 출현빈도 3위를 차지했던 ‘사회복지서비스’는 최근접이웃중심성 10위권에 있어 국지적 중심성은 낮은 반면, 평균연관성과 삼각매개중심성에서는 각각 상위 5위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전체 키워드들 중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임을 말해준다. 이와 비슷하게 출현빈도 4위에 속했던 ‘사회보장’이 최근접이웃중심성에서는 10위권에, 삼각매개중심성에서는 10위권 밖에 속해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국지적 중심성이 용어의 출현빈도에 비해 강하지 않으며 다른 키워드들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크지 않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평균연관성에서는 5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전체 키워드들과의 평균적인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단순 출현빈도는 10위권 밖에 있어 높지 않으나, 최근접이웃중심성과 평균연관성에서 4위 및 7위에 속해 있어, 국지적 및 전체적으로 비교적 중심적인 위치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복지국가’, ‘미국’, ‘빈곤’ 등은 빈도와 세 가지 중심성 지수에서 일관되게 중위 수준의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수 값들을 통해 보여주는 주요 키워드들의 상대적 위상은 연결구조의 시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연결구조의 시각화는 키워드 간 피어슨 상관관계 행렬값을 WNET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출력된 값을 NodeXL로 구현한다. 먼저, 키워드들 사이의 상관관계수는 키워드끼리의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입력데이터로 하여 산출한 것인데, 두 키워드가 제 3의 키워드와 동시출현한 값을 비교한 결과이므로 간접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2차 연관성 값이다. 이 값은 -1에서 1 사이에 분포되는데, 부호가 음인 경우는 역의 상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두 키워드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즉, 동일한 연구의 키워드로 동시출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극히 희박함)을 가리킨다.

〈표 6〉 1979-2000년 기간의 주요 키워드별 상관계수가 최저 및 최고인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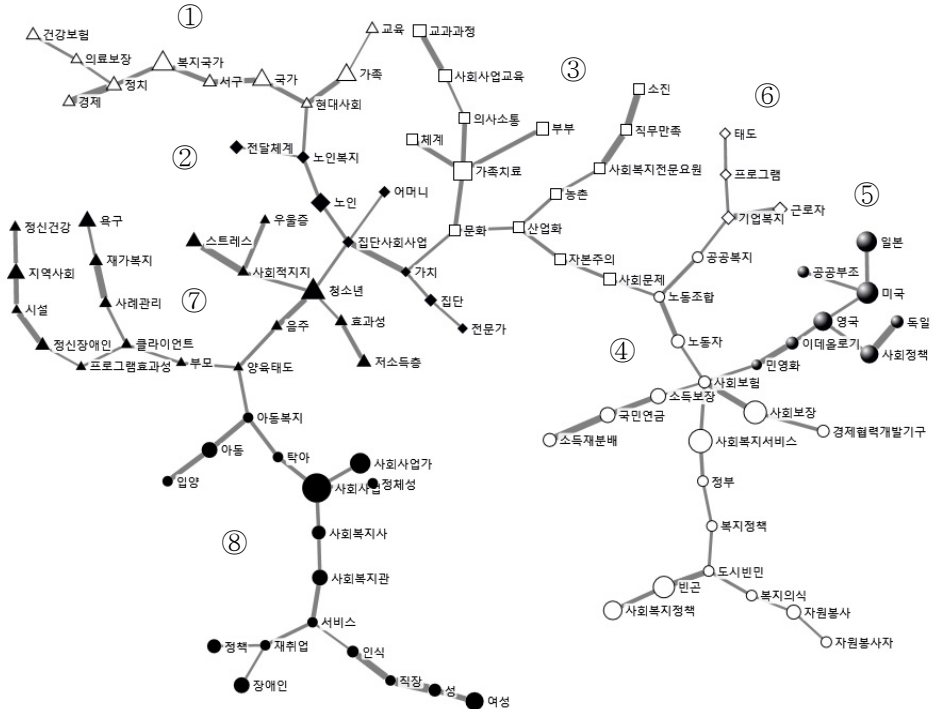
	최 저 값		최 고 값	
	키워드 명	상관계수	키워드 명	상관계수
사 회 사 업	농 촌	-0.06065	탁 아	0.45738
청 소 년	자본주의	-0.05144	음 주	0.58328
사회복지서비스	직 장	-0.05883	정 부	0.43856
사 회 보 장	가 치	-0.05975	사회보험	0.62735
복 지 국 가	청 소 년	-0.06196	서 구	0.53695
미 국	인 식	-0.05821	일 본	0.44905
빈 곤	농 촌	-0.07042	도시빈민	0.62360

출현빈도 7위까지의 키워드 각각에 대해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키워드와 가장 높은 키워드를 예시한 위의 표를 보면 키워드 간 관계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사업'은 '농촌'과 동시출현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탁아'와 가장 높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관계는 뒤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조의 시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키워드는 상관계수가 최고값을 보이는 키워드와 최근접 이웃관계를 보이며, 반면에 최저값을 보이는 키워드와는 거리가 먼 군집에 속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값을 바탕으로 키워드 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노드엑셀 프로그램으로 시각화 한 것이 다음 〈그림 1〉이다. WNET 프로그램에 의해 출력되는 군집분류(clustering) 결과에 따르면 97개의 키워드는 3개, 8개, 28개의 군집(clusters)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너무 크게 묶거나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방법이 아닌 8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중도적 방법이 지적 구조의 파악에 무난하리라 보아 여기에 따랐다. 그 결과를 ①에서 ⑧까지 표시하였으며 각 군집은 서로 다른 노드의 모양으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노드의 크기는 출현빈도를 반영하며, 노드 사이의 연결선의 굵기는 동시출현의 빈도를 반영한다.

군집①에서는 '복지국가'가 출현빈도도 높으며 군집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이 군집은 「복지국가론」 영역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군집②에서는 '노인'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근접이웃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아 이 군집에서 중심에 속한다. 「노인복지실천」 영역으로 명명함이 적절해 보이는 이 군집은 포함하는 키워드의 수가 적고 출현빈도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되 전체 연구동향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군집③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그 하나는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단위의 실천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산업화'와 '사회문제' 등 거시적 주제를 중심 주제로 한 영역이다. 「실천·정책 접점」 영역으로 명명함이 적절해 보이는 군집③은 복지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군집④와 「노인복지실천」 영역인 군집②를 중개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군집에 속한 키워드 중에서는 평균연관성이나 삼각매개중심성 지수 10위권에 드는 키워드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전체 지적 구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1979-2000 기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군집④는 빈곤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를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들을 아우르는 영역으로서, 「복지정책 및 제도」 영역으로 명명함이 적절해 보인다.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군집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용어일 뿐 아니라, 전체 키워드들과 비교적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높은 평균연관성과 삼각매개중심성 지수를 통해 드러난다. 군집⑤는 '영국',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특정 국가명과 '사회정책' 등이 높은 출현빈도와 중심성 지수를 보이는 점에서 「비교사회정책」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 군집에 속하는 키워드들 가운데 빈도, 평균연관성, 삼각매개중심성 등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군집이라 할 만하나, 다른 군집들을 연결시키는 위치가 아닌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다소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기업복지 관련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기업복지」 영역으로 명명할 만한 군집⑥은 출현빈도 및 중심성 지수의 값이 높은 키워드들이 없는 주변적 영역으로 보인다. 국지적 중심성이 가장 높으면서 전체 연관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값이 매우 높은 '청소년'과 국지적 중심성 지수 10위권에 속하는 '지역사회'와 '정신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⑦은 국지적 및 전역 중심성 지수가 매우 높은 '청소년'을 중심에 둔 영역으로서 「청소년 지원」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 영역은 군집②를 통해 다른 여러 군집들과 연결되며, 군집⑧을 다른 군집들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군집⑧에서는 '사회사업'과 '사

회사업가'가 중심을 차지하는 「전문적 실천」 영역이라 할 만한데, 이 군집은 외곽에 속해 있으나 '사회사업'은 전체 키워드들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짐을 앞서 중심성 지수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와 「실천·정책 접점」 영역이 네트워크의 중심부에서 다른 영역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전문적 실천」 및 「청소년 지원」과 같은 미시적 접근의 영역과 「복지정책 및 제도」 및 「비교사회정책」과 같은 거시적 접근의 영역이 대척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2) 2001-2015년 기간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표된 연구들의 키워드 중에서 5회 이상 출현한 99개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중심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출현빈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던 '빈곤'이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도 일관된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용어가 속해 있는 국지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이 시기 전체의 키워드 연결망 속에서도 '빈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키워드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7> 2001년-2015년의 중심성 지수별 상위 10위

순위	최근접이웃중심성(C _{NN})	평균연관성(C _M)	삼각매개중심성(C _{TB})
1	빈곤 .122	빈곤 .378	빈곤 .057
2	사회적지지 .112	타당도 .357	노인 .034
3	노인 .091	신뢰도 .306	우울 .026
4	청소년 .091	노인 .286	사회복지사 .023
5	타당도 .081	사회적지지 .265	사회적지지 .020
6	사회복지사 .071	우울 .245	장애인 .019
7	우울 .061	사회복지사 .224	타당도 .018
8	장애인 .061	장애인 .214	사회복지실천 .016
9	신뢰도 외41) .051	사회복지실천 .194	생활만족도 .016
10		청소년 .173	청소년 .015

주: 1) 사회복지실천, 자아존중감, 정신장애인, 아동학대 등

아울러,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의 인구집단이 국지적 중심성은 물론 전역중심성이 높으며, '사회적지지'나 '우울' 혹은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들과 신뢰도 및 타당도와 같은 양적 분석을 위한 척도에 적용된 용어들이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의 시기와 비교해보면, 빈곤의 중요도가 부각된 점, 심리·사회적 특성과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의 용어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거시적 담론 영역의 키워드들과 '영국',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명 키워드들이 중심적인 위치에서 밀려난 점, '사회복지실천'(2000년 이전에는 '사회사업')의 중요도가 눈에 띄게 하락한 점, '사회복지사'와 '장애인'이 새로이 중심적인 용어로 대두된 점 등이 차이점으로 발견된다. 반면에 앞서 언급한 '빈곤' 외에 '노인'과 '청소년'은 꾸준히 10위권 이내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키워드들 가운데 출현빈도 상위 7개의 키워드 각각에 대해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키워드와 가장 높은 키워드를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빈곤'은 '척도'와 동시출현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근로빈곤층'과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은 '차별'과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동시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키워드 쌍임을 말해준다.

〈표 8〉 2001-2015년 기간의 주요 키워드별 상관계수가 최저 및 최고인 키워드

	최 저 값		최 고 값	
	키워드 명	상관계수	키워드 명	상관계수
빈 곤	척 도	-0.03820	근로빈곤층	0.66808
사회복지사	사회적지지	-0.04130	인 식	0.31148
노 인	교 사	-0.04687	은 퇴	0.39912
우 울	태 도	-0.05363	사회적지지	0.28529
청 소 년	척 도	-0.04974	자살생각	0.39133
장 애 인	사회적지지	-0.04740	차 별	0.73309
정신장애인	음주문제	-0.03803	거주시설	0.34530

이러한 키워드들 사이의 관계를 NodeXL로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키워드 군집을 분류해주는 WNET 프로그램은 99개 키워드를 24개, 6개 및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에서도 양 극단을 피하고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지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군집④는 '빈곤', '사회복지실천', '장애인' 등이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서, 취약집단의 「빈곤과 배제」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주축이 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군집⑥는 군집④와 나머지를 연결짓는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지지'와 '우울',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 등 중심성 지수의 값이 큰 키워드들로 포진돼 있다. 주요 인구집단의 삶과 행동 및 의식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식·행동 분석」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 군집은 이 시기의 전체 키워드 연결망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역임을 말해준다. 반면에 평균연관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등의 지수에서 10위권에 드는 키워드가 하나도 없는 군집③은 군집 ⑥와 ⑦를 연결시켜 주나 상대적 중요도는 매우 낮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 군집③은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 및 '미국' 등으로 구성되어, 「제삼섹터」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군집⑧는 '사회복지사', '신뢰도', '타당도' 등과 같은 용어들이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서, 출현빈도는 낮으나 다양한 문제집단들이 이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척도 개발과 적용」 영역으로 명명하고자 하는 이 군집은 군집③⑤⑥를 연결 짓는 위치에 있어,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2001-2015 기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군집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공공부조’ 및 ‘자활’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 『공공부조』 영역으로 명명할 만하며, 개별 키워드들의 출현빈도, 전역중심성(평균연관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지수 등이 모두 낮은 키워드들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의 여섯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도가 낮은 영역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군집⑥는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주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사회복지사의 직무 등이 중심이 되는 영역으로서, 『사회서비스 전달효과』 영역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정신장애인’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출현빈도는 높으나 전체 연결망 속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평균연관성, 삼각매개중심성)는 모두 10위권 밖에 위치해 있다.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는 다양하고 그 수가 많으나, 중심성 지수가 낮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타 연구영역들과의 연관성이 낮은 영역임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척도의 개발과 적용』 및 『의식·행동 분석』과 같은 주제 영역이 중심 연결부에 위치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양적 연구가 크게 확대된 이 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 현상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이들을 접점으로 하여 『빈곤과 배제』의 영역과 『사회서비스 전달효과』의 영역이 대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전의 시기에는 미시적 접근의 영역과 거시적 접근

의 영역이 균형을 이루며 뚜렷하게 구분되는 구조를 띠었던 반면, 이 시기에는 거시적 담론 영역의 키워드들이 전체 구조에서는 물론 국지적으로도 상대적 중요도가 급격히 쇠퇴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 1979-2015년 전체 기간

마지막으로 전체 기간에 걸쳐 6회 이상 출현한 133개 키워드들에 대한 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빈곤’은 출현빈도, 최근접이웃중심성, 평균연관성, 삼각매개중심성 등에서 모두 일관되게 최상위에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 등이 비교적 높은 빈도와 중심성 값을 보이는 키워드들에 속함도 알 수 있다.

〈표 9〉 전체 기간의 중심성 지수별 상위 10위

순위	최근접이웃중심성(C _{NN})	평균연관성(C _M)	삼각매개중심성(C _{TB})
1	빈곤 .121	빈곤 .500	빈곤 .102
2	사회적지지 .068	사회복지실천 .477	사회복지실천 .074
3	사회복지사 .061	사회복지사 .462	사회복지사 .072
4	노인 .061	사회복지서비스 .371	사회복지서비스 .059
5	사회복지실천 .053	노인 .371	노인 .054
6	지역사회 .053	청소년 .356	청소년 .046
7	타당도 .053	사회보장 .295	장애인 .040
8	청소년 외51) .045	타당도 .288	사회보장 .027
9		복지국가 .280	지역사회 .025
10		사회적지지 .265	미국 .020

주: 1)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복지국가,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인구집단을 가리키는 키워드 중에는 ‘노인’과 ‘청소년’이 일관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고, 출현빈도 9, 10위인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다소간 중심성 지수에서 들쭉날쭉한 면모를 띤다. ‘정신장애인’은 국지적 중심성은 높으나 전역 중심성은 낮으며, ‘장애인’은 전역 중심성 지수의 하나인 삼각매개중심성 지수는 높은 편이나 국지적 중심성 면에서는 10위권 밖에 있다.

앞서 제시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출현빈도 상위 7개 키워드 각각에 대해 피어슨 상관계수가 최저인 키워드와 최고인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빈곤’은 ‘대학생’과 동시출현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기초생활보장’과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은 모두 ‘자이존중감’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며, ‘사회보험’과는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

〈표 10〉 전체 기간의 주요 키워드별 상관계수가 최저 및 최고인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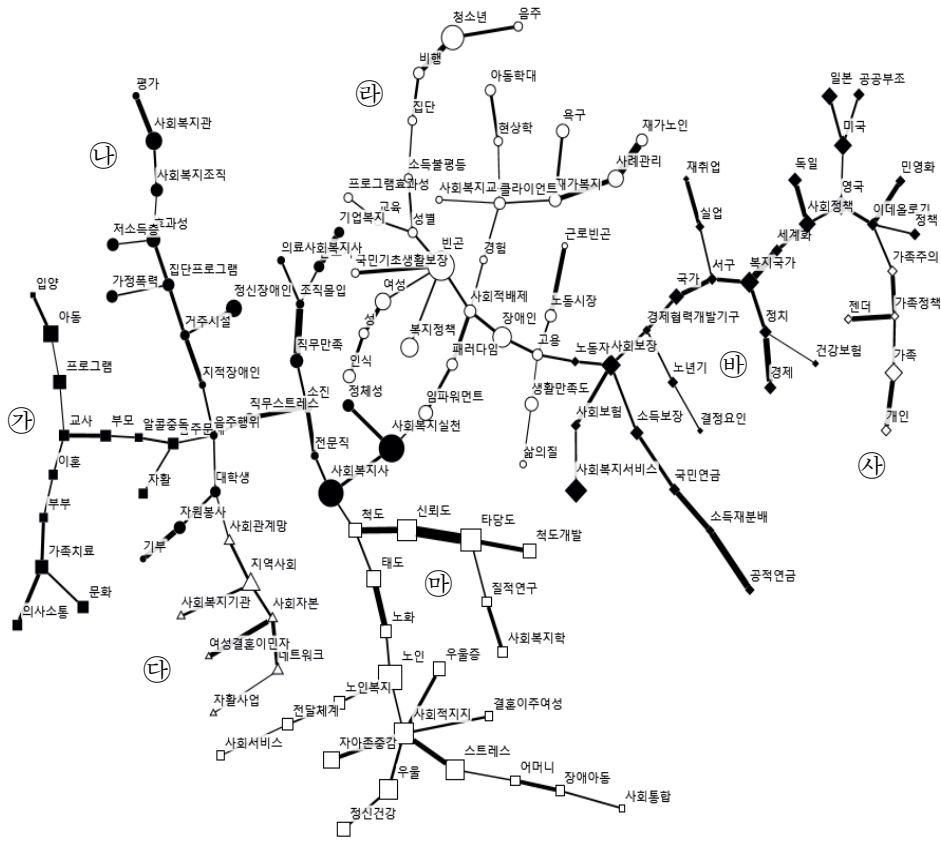
	최 저 값		최 고 값	
	키워드 명	상관계수	키워드 명	상관계수
빈 곤	대 학 생	-0.03256	기초생활보장	0.42063
사회복지실천	노 동 자	-0.03451	정 체 성	0.42887
사회복지사	자아존중감	-0.03714	사회복지실천	0.38953
청 소 년	척 도	-0.03624	비 행	0.59398
노 인	재가복지	-0.03894	노인복지	0.29500
사회복지서비스	자아존중감	-0.03810	사회보험	0.27609
사 회 보 장	자아존중감	-0.04020	사회보험	0.43455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키워드 간 연결망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NET 프로그램은 133개 키워드를 7개의 군집으로 구분한다. 군집㉑는 아동 및 가족문제와 이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중심주제로 하는 영역으로서, 「아동·가족 임상접근」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중심성 지수가 상위권에 드는 키워드가 없고, 키워드의 수도 적으며, 외곽에 위치해 있는 양상을 띤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지 않은 영역임을 보여준다.

군집㉒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실천을 중심주제로 한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실천 맥락」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실천'과 같이 세 가지 중심성 지수의 값이 모두 최상위권에 속하는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군집㉑㉒㉓㉔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전체 연결망 구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볼 만하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관계 네트워크를 중심주제로 한 군집㉕는 「지역사회 관계」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 군집은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할 뿐 아니라, 포함된 키워드의 수가 적고, 중심성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작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군집㉖는 취약집단의 소득문제 등에 관한 정책적 및 실천적 접근에 관한 주제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영역으로서, '빈곤', '청소년', '장애인' 등과 같은 출현빈도가 높고 평균연관성 및 삼각매개중심성의 값이 큰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배제론」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집㉑㉒를 잇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역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전체 기간(1979-2015)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한 양적 연구 관련 키워드들이 중심을 이루는 군집①은 「의식·행동 분석」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군집은 비록 다른 군집들을 이어주는 위치에는 있지 아니하나, '노인'과 같이 모든 중심성 지수의 값이 큰 키워드와 '타당도'처럼 전역 중심성 지수인 평균연관성의 값이 큰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높은 영역이라 볼 만하다.

군집②는 군집①과 군집④를 연결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국가' 등과 같이 평균연관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지수의 값이 큰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 복지국가와 세계화, 사회정책과 복지제도, 이데올로기와 비교사회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어, 「거시담론」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군집④는 '가족'을 중심 키워드로 하고 있으면서 '가족정책'이 군집 내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군집①에서 가족문제가 임상적인 접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 영역으로 명명한다.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며, 구성하는 키워드

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중심성 지수가 낮아서, 중요도가 낮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집⑥의 「빈곤·배제론」이 미시적·실천적 접근과 거시적·정책적 접근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접점에 위치해 있고, 한쪽으로 군집④의 「사회복지실천 맥락」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 및 임상 영역이, 다른 한쪽으로는 군집⑤의 「거시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영역이 대척적 관계를 이루는 지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 이후의 기간에는 정책적 접근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독자적인 군집을 형성하지 못하는 구조를 보였으나, 연구기간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양자가 대비되는 구조가 되살아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미시적 실천 및 임상 영역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주도하는 양상을 띠는 점에서는 2000년 이전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5. 맺는 말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학회지가 창간된 197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2000년까지와 2001년 이후로 구분하여 논문 키워드의 변천과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서술의 편의상 2000년까지를 '전기', 2001년 이후를 '후기'로 약술하면서, 이 전·후기에 걸쳐 나타나는 연구동향의 특성들을 요약적으로 짚어가면서 이들이 주는 함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방법의 동향을 보면, 비경험적 문헌연구에서 경험적 연구로 경향이 이동하는 가운데 양적 연구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고, 질적 연구가 느리게 그 비중을 키워가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되어 왔던(김연옥, 1998; 홍경준, 2002; 오정수, 2002; 강철희·김미옥, 2003) 양적 연구 편중성 문제는 후기에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진부한 실증주의에 함몰되어 있다고도 할 이러한 양적 연구 편향성이 학문구조의 분열과 학문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오정수, 2002)은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겠으나, 한국의 사회복지학이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토착화된 지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강철희·김미옥, 2003), 연구방법의 편중성을 벗어나기 위한 학계 및 개별 연구자의 실질적인 노력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기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학계에 널리 공유된 바이므로, 남은 과제는 학문 및 교육 공동체의 실행의지와 이행방법에 대한 숙의일 것이다.

연구방법별 키워드 출현빈도 분포를 보아도 상황의 심각성은 확인된다. 연구방법에 따라 사용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이 뚜렷히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일례로 '빈곤'은 양적 연구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키워드였음에도 질적 연구의 키워드 출현빈도 상위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 '빈곤'이 분석대상 전 기간을 통해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던 키워드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김교성(2011)도 이와 같은 양적 연구 중심의 빈곤 연구는 행위주체와 관련 이슈가 편중되는 문제 외에, 실태분석의 표상성과 대상의 타자화 현상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이라는 현상 및 빈곤한 삶 등을 둘러싼 인식주체의 경험과 의

식에 대한 대안적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기별 키워드 출현빈도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전기와 후기 사이에 다소간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기에는 출현빈도 상위권에 미시적 접근 관련 키워드와 거시적 접근 관련 키워드들이 균형을 이룬 반면, 후기에는 사실상 미시적 접근 관련 키워드들로 상위권이 거의 채워지고 있고 거시적 접근 관련 키워드들은 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관심도가 높은 인구집단은 전기의 '청소년'에서 후기의 노인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었음도 볼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가 가시화되면서 '노인'의 출현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전체 기간을 통해서 일관되게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음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 밖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후기에 급속히 상승한 한편,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관심은 이들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점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장애인'이 급속히 부상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고용과 편의증진 및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들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나타낸 결과인 것으로 읽힌다.

키워드들의 동시출현 빈도 행렬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기본정보를 보여주는 키워드별 최근접이웃중심성, 평균연관성 및 삼각매개중심성 등의 중심성 값을 산출하고, 키워드간 연결구조를 시각화하여 지적 구조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앞서 지적한 연구방법의 편향성 문제가 다시 드러난다. 전반적인 키워드 연결구조 내에서 특정 키워드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나 다른 키워드들을 매개하는 역할의 정도는 전역 중심성 값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분석결과를 보면 앞서 다른 키워드별 출현빈도의 크기와 전역 중심성의 값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다.⁸⁾ 자주 출현하는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가 대체로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현빈도 분포에서 발견되었던 전반적인 특성이나 문제점이 전역 중심성 지수 값의 분포와 시각화된 키워드 연결구조에서 재차 확인된다.

시기별 사회복지학 연구의 지적 구조를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우선 전기에는 미시적 영역과 거시적 영역이 균형을 이루며 네트워크 상에서 뚜렷한 대척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후기의 양상은 사뭇 이와 차이가 있다. 거시적 담론 영역의 키워드들이 전체 구조에서는 물론 국지적으로도 상대적 중요도가 급격히 쇠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적 연구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연구의 주제와 키워드 역시 이에 부합하는 것들로 대체되어 간 사실을 반영해준다 하겠다. 이러한 두 시기 사이의 뚜렷한 차이는 두 시기를 합한 전체시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뒤섞여 희석된 형태로 나타나되, 연구논문의 편수가 갑절에 가까운 후기의 특성이 더 강하게 반영된 양상을 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시적 영역 대 거시적 영역의 대비가 드러나는 구조이나, 그 가운데 전자가 대중을 이루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주체의 편향성이 연구방법의 편향성과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을 의심해볼 수 있을 듯하다. 연구주체의 쏠림 현상과 연구방법의 편향성이 상호인과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선행하는 조건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 단정할 수는 더욱 없다. 연구주체에 따라 방법이 선택되는 것이 순리이겠으나, 이와 달리 선호하는 연구방법에 걸맞은 연구주체를 선택하는 경우도 없으리란 법은 없다. 측정의 단위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거시적 영역의 연구주체에 양적 연

8) 전체기간에 6회 이상 출현한 133개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전역 중심성 지수 사이의 단순상관계수를 보면, 평균연관성과는 .938, 삼각매개중심성과는 .939로 산출되었음(모두 $p < .01$).

구의 방법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탓이다. 자칫 지적 구조의 기형화를 불러올 우려까지 있는 연구주체의 편중 현상이 만약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편향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이 실재해 왔다면 이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답은 개별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일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추출해낸 몇 가지 특징적 사실들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들이 한국 사회복지학계의 상황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일은 아니라 본다. 비록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라 하나 특정 단일학회의 학술지에 불과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학계가 아닌 당해 학회의 사정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가 지니는 자료원과 분석방법상의 한계를 넘어서 진실에 좀 더 다가가는 작업은 학문공동체의 지속적 과제일 수밖에 없겠다.

참고문헌

- 강상경, 2014, “정신보건 연구동향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4): 53-73.
- 강철희·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55-81.
- 고재창·조근태·조윤호, 201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술경영의 최근 연구동향”, 『지능정보연구』, 19(2): 101-123.
- 곽선영·정은경, 2012, “복수저자기반 동시인용분석을 활용한 지적구조 분석: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9(1): 115-134.
- 김경미·김미옥,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과 고찰: 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69-294.
- 김경식, 2015,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통한 스포츠사회학의 지적구조 규명: 22년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8(3): 1-25.
- 김광재·박종구, 2011, “저자동시인용분석방법을 이용한 혁신확산 연구의 지적구조 : 커뮤니케이션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6): 52-87.
- 김광혁, 2014, “학교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학교사회복지』, 28: 55-80.
- 김교성, 2011,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18(1): 43-82.
- 김도미, 1993, “저자동시인용분석과 인용한 문헌의 색인어 분석에 의한 지적구조의 규명: 경제학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관리연구』, 24(1): 32-57.
- 김라경·연준모, 2015, “성인 발달장애인 주거 관련 연구동향 분석”, 『발달장애연구』, 19(1): 1-27.
- 김미옥, 2015, “한국 사회복지실천연구 경향에 관한 반성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7(4): 153-180.
- 김미혜, 2008, “한국노년학의 복지분야 연구동향: 1980년(창간호)부터 2008년(28권 제2호)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733-752.
- 김민, 2009, “한국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2): 223-256.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 85-105.

- 김영준·김채환, 2007, “국내 언론학의 지적 구조 매핑(Mapping)에 관한 연구: 1989~2006년 저자동시 인용분석”,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5(3): 155-184.
- 김재욱·김향미·이소영·이진화, 2008, “저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한 “관계 마케팅” 연구 동향 및 지적 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저자 관계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23(3): 1-35.
- 김희전·조현양, 2010, “저자동시인용분석과 저자 서지결합 분석에 의한 지적 구조 분석: 사회복지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7(3): 283-306.
- 나운환, 2011,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 연구주제 및 동향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1): 35-53.
- 박주영, 2012, “한국여성장애인분야 연구동향 분석: 1981년-2011년의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6(3): 27-48.
- 선우덕, 2008, “노인보건정책의 발전과정 및 연구동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노년학』, 28(4): 773-784.
- 성정숙·이나영, 2010a, “사회복지연구를 위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비평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2(2): 349-373.
- 성정숙·이나영, 2010b, “사회복지(학)에서의 ‘성적 소수자’ 연구의 동향과 인식론적 전망”, 『사회복지연구』, 41(4): 5-44.
- 신보희·이경림·안성우·신창숙, 2014,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국내 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시각장애연구』, 30(3): 1-25.
- 오세영, 2011, “원불교사회복지의 연구동향과 학문적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 67-101.
- _____, 2013, “한국종교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5: 399-425.
- 오윤정·남진열, 2012, “사회서비스 사업평가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비판사회정책』, 37: 249-283.
- 오정수, 2002,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13: 33-46.
- 윤상우, 2013, “IMF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과정”, 『아세아연구』, 56(3): 364-395.
- 이수범·권영순, 2006, “우리나라 PR 연구의 지적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동시인용분석을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10(1): 229-261.
- 이재운, 2006a, “계량서지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91-214.
- _____, 2006b, “지적 구조의 규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33-355.
- _____, 2013,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지수 비교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 이현지·김민수,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사회복지연구 동향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5: 27-45.
- 임종호·유영준·진혜경, 2003, “한국 학교사회복지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 6: 67-99.
- 장령령·홍현진, 2014, “학술지 중요도와 키워드 순서를 고려한 단어동시출현 분석을 이용한 독서분야의 지적구조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95-318.
- 전은주·천성문·이영순, 2013, “저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한 상담학의 지적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14(1): 461-480.
- 정상원·송아영, 2007,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적용을 위한 성과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창립50주년 기념 세계학술대회 발표문.

- 정순돌·김성원, 2012,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인식과 대책”, 『사회과학연구논총』, 27: 275-311.
- 조홍중·김일명·김정란, 2013, “뇌병변 장애아동의 AAC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17(2): 1-26.
- 지주형, 2007, “위기관리와 변동의 정치사회학”, 『한국사회학』, 41(5): 1-34.
- 진혜경, 2013, “한국 교육복지 연구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60-269.
- 최 균, 1995, “한국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기획주제발표)』, 4월: 1-14.
- 최재성·정세정·조자영,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최근 10년간 연구경향 특성: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의 활용”, 『한국사회복지학』, 68(1): 73-94.
- 최복천·김유리, 2014,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4): 151-174.
- 홍경준,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 복지』, 13: 13-32.
- 황성철, 2002,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 153-177.

Keyword Network Analysis about the Trends of Social Welfare Researches

- focused on the papers of *KJSW* during 1979~2015 -

Kam, Jeong Ki

(Kyungnam University)

Kam, Mi Ah

(Yonsei University)

Park, Mi Hee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key word networks of the papers which are published a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issued by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from 1979 to 2015. It aims at investigating the trends of social welfare researches in Korea by dividing the given period into two: 1979-2000 and 2001-2015. It shows the trends in three ways: methodologies, subjects, and intellectual structures. In order to identify intellectual structure, it calculate centrality indices basing on co-appearance frequency of key words. It also derives some values which explain relationship structure of key words by using pathfinder algorithm, and finally visualizes the intellectual structures by using the NodeXL program. Som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ese analyses are discussed in the end.

Key words: trend of researches, key words, network, centrality, intellectual structure

[논문 접수일 : 16. 04. 30, 심사일 : 16. 05. 09, 게재 확정일 : 16. 05. 20]